오가와 요코(小川洋子)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博士の愛した数式)」론

황봉모*

〈차 례〉

1. 들어가며
2. 가정부(家政婦)라는 인물
3.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가족
4.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과의 비교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 나오는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과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비교분석했다.

우선 가정부는 타인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가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겸손하게 대한다. 요컨대 그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정

* 한국외대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사.

부를 통해 볼 수 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 나오는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한다. 세 사람의 관계는 피로 연결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현대의 대안가족이다.

한편 소설「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영화로 제작된다. 그런데 영화「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는 형수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소설에서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 세 사람의 가족이었다면, 영화에서는 여기에 형수가 들어가서 네 사람의 가족이 된다. 영화에서 오일러 공식의 한 인간은 형수로, 형수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완성된다. 또 영화에서는 형수의 낙태를 통하여 생명존중의식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박사가 사랑한 수식」, 오가와 요코, 가정부, 박사, 루트

1. 들어가며

오가와 요코(小川洋子)는 1962년 오카야마(岡山)에서 태어났다.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를 졸업하고, 1988년『상처받은 호랑나비(揚羽蝶が壞れる時)』로 가이엔(海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그리고 1991년『임신 캘린더(妊娠カレンダー)』로 제104회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작가다.

오가와 요코의「박사가 사랑한 수식(博士の愛した數式)」은 2003년 8월에 신초(新潮)사에서 간행된 작품이다. 2004년 제1회 서점대상 및 제55회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문고판(2005년 12월 간행)은 신초사 사상 가장 빠른 2개월 만에 100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오가와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교통사고로 기억이 80분까지밖에 지속되지 않는 박사와 그 집에 들어간 가정부,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펼쳐가는 이야기다. 작품에서는 수학과 일본프로야구를 낫줄과 씨줄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본고에서는 우선,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주인공인 가정부 '나'에 대해서 고찰하고, 박사와 가정부, 그리고 가정부의 아들 루트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 작품과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2. 가정부(家政婦)라는 인물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주인공인 가정부 '나'의 서술로 진행된다. 가정부 '나'는 열 살짜리 아들을 가진 미혼모로, 가정부 경력은 10년이다. 그녀는 소개소에서 새로운 일을 부여받는다. 그런데 그곳은 9개의 스탬프가 찍힌 집이었다. 가정부가 고객의 불만 때문에 교체되면 스탬프를 찍는데 박사의 고객카드에는 9개의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요컨대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라는 의미였다.

가정부가 간 집에는 예순 네 살에 수학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전(前) 대학교수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박사는 1975년 마흔 일곱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친 이후로 기억이 80분간만 유지되는 희귀병에 걸린다. 박사의 기억은 그때의 시간에 정지되어 있었고, 그의 기억은 80분이 지나면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양복 여기저기에 클립으로 고정시킨 메모지들을 보며 자신의 기억을 유지했다. 이러한 박사를 보살피기 위해 가정부로 파견된 주인공은 박사에게 매일 아침 낯선 사람 취급을 받으며 현관에서 똑같은 문답을 주고받는다. 그들이 주고받은 문답은 숫자에 관한 것이었다.

가정부는 출근하고 나서 조금 지나자, 무엇을 말하면 좋을 지 혼란스러울 때, 언어 대신에 숫자를 꺼내는 것이 박사의 버릇이라는 것을 파악한다. 그것은 타인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가 고안해 낸 방법이었다. 박사는 9번의 스탬프가 찍힐 정도로 사람과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도 자신만의 소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숫자를 통한 방법이었다.

무엇보다 박사는 사회로부터 혼자 떨어져 사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가 사는 집의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박사가 거주하는 별채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의 번역이다.

> 안채에서 보기에 별채는 한없이 조용하고 인기척이라곤 느껴지지 않았다. 홍가시나무 울타리에는 별채로 통하는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잘 보니 그 문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완전히 녹이 슬고 새똥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어 이제 와서는 어떤 열쇠로도 열릴 것 같지 않은 자물쇠였다.[1)]

박사가 거주하는 별채는 안채와 분리되어 있고 안채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채에서 별채로 통하는 여닫이문에는 묵직한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어떤 열쇠로도 열릴 것 같지 않는 곳이었다. 또 별채 주위로는 손질하지 않은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있었고, 현관은 햇빛도 들지 않고, 벨은 망가져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박사가 거주하는 별채는 홀로 동떨어진 곳이었다. 박사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사회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 떨어져 살고 있는 박사는 사람과의 교류에 서툴렀다.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박사는 숫자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런데 숫자로 소통하는 박사의 교류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

---

1) 小川洋子「博士の愛した數式」新潮社, 2005, p. 12.

부들은 금방 그의 집을 그만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인 가정부 '나'는 달랐다. '나'는 박사의 소통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녀는 박사와 현관에서의 문답을 신선한 기분으로 즐긴다. 박사는 가정부 집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그 숫자가 1에서 1억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素數)의 개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하며, 자못 감격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러한 박사를 보고 가정부는 따듯함을 느낀다.

> 우리 집 전화번호의 어디가 멋있는가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의 말투에 담겨있는 따듯함이 전해져 왔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러움과 솔직함이 느껴졌다. 어쩌면 우리 집 전화번호는 특별한 운명을 지니고 있고, 그 수를 소유한 나의 운명도 또 특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온기였다.[2)]

가정부는 매일 아침 현관에서 숫자로 소통하는 박사를 귀찮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즐긴다. 그녀는 이러한 문답을 하는 박사에게서 온기를 느낀다. 가정부는 박사에게 온기를 느끼며 자신도 그를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에게 숫자는 타인과의 소통 수단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며, 과거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끼여 옴짝달싹 못하는 그를 현실에 닿게 해주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녀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정부는 박사에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면의 인간관계로써 접근한다. 가정부는 박사가 80분 전의 일을 되도록 묻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당연히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몹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박사와 함께 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수를 사랑하는 박사를 이해하게 된다. 집에

---

2) 같은 책, p. 14.

서는 박사가 말한 우애수를 찾아본다. 박사는 별난 사람이 아니고, 첫 별을 가장 먼저 찾아내고, 한신(阪神)타이거즈 구단의 에나쓰(江夏)선수를 좋아하고, 소수를 사랑하며, 정답만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아무리 엉뚱한 실수를 해도 "강바닥의 모래에서 사금 한 알을 캐내듯"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그녀는 박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한다.

또한 가정부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가정부와 루트, 그리고 박사가 야구경기를 관람하고 온 날, 박사는 심한 열을 내며 앓는다. 그래서 그들은 병간호를 위해 박사의 집에서 묵기로 한다. 그것은 소개소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아픈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가정부로서도 박사의 간병은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었다. 밤새 박사를 간병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가지 않고 박사를 간병한다. 이것은 단지 박사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였다. 그런데 가정부는 박사의 병간호로 해고당한다. 가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지만 소개소의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정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다. 일을 일로만 대하지 않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며, 어찌 보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써 기계적으로 박사를 대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박사와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가정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가정부는 고교를 다닐 때 아이를 낳는다. 어머니가 아이 낳는 것을 반대하자 그녀는 집을 나온다. 그녀는 "조산원의 작은 배 같은 투명한 침대에 누워있는 갓난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 기쁨보다 공포에 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녀는 18세로 학력도 없고, 혼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는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은 강한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신이 일을 해서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도 어렵다.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부는 이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어린 그녀가 세상사에서 겪었어야 할 어려움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가정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녀는 고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사귄다. 그는 차분하고 교양이 풍부한 청년이었지만,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안 후, 그는 일개 어리석은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린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정부는 인생에서 사랑한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녀가 미혼모였던 자신의 어머니의 불행을 옆에서 보아 왔으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은 사랑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이다. 남자가 자신을 버려도 자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은 자신이 사랑한 시간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안고 간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 가정부로 일하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남자는 그녀와 보낸 시간을 버리고 모습을 감춰버렸지만, 그녀는 그와 보낸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신문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가 상을 받은 기사를 아이의 탯줄을 넣어둔 상자에 간직한다. 그 상자에는 아기 아버지 사진도 들어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그와 보낸 시간을 기억한다.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예전 남자친구를 원망하지 않으며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을 껴안는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들인 루트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또한 가정부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녀는 아들을 자신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다. 아들이 조그만 상처가 났을 때, 그녀는 박사의 응급처치를 믿지 못하고 수선을 피운다. 아들은 박사를 믿지 못하는 가정부를 보며 실망한다. 그 상한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자신에게 말도 안 하는 아들에게 가정부는 사과한다.

> "미안하다."
>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 "엄마가 잘못했어. 잠시나마 박사님을 믿지 못한 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어. 반성하고 있어. 사과할게. 반성합니다."[3]

가정부의 사과로 두 사람은 화해한다. 가정부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가정부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아들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아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가정부 '나'는 현대인에게 부족한 인간다운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즉 가정부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신체적

3) 같은 책, p. 125.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 아이에게까지 겸손한 마음, 그리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잃어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가와 요코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가정부 '나'를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3.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가족

가족의 형태로는 대가족, 부부중심가족, 모자가족, 독신가족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인 정의로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혼자녀들로 구성된 부부중심가족'을 말한다. 가족의 형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이 중심이고, 근대산업사회 이후에는 부부중심가족으로 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변하게 된 것이다. 가족 구성원의 기능적인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는 오늘날 가족의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오늘날 가족의 주된 기능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린이를 사회의 규범적 가치체계에 맞게 사회화시켜 적절한 지위를 기대하도록 가르치는 기능과, 둘째는 남성 노동자들이 소외된 직업세계에서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되고 다정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 가정 내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아내와 어머니들에 의해서 행해진다.[4)]

이와 함께 파슨스는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오고 규율을 엄수하는

4) 박숙자 외 편역『가족과 성의 사회학』사회비평사, 1995, p. 329.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은 남편의 몫이고, 가족의 영양과 애정을 책임지는 표면적인 역할(expressive role)은 아내의 몫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능적인 가족형태가 현대산업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볼 때,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박사와 가정부, 그리고 루트는 하나의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 사람이 각각 자신이 맡은 가족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사는 「수학저널」 발행 이래 최고의 현상금을 받기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진다. 그리고 박사는 루트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그를 사회적 규범체계에 맞게 교육한다. 요컨대 남편의 몫을 수행한다.

박사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서툴렀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만은 예외였다. 박사는 가정부의 아들과 처음 만난 날, 아들의 평평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수를 포용할 수 있는 루트 기호와 닮았다고 하면서 루트라는 별명을 지어준다.

박사는 수학에서 소수를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그는 루트를 소수만큼이나 아낀다. 소수가 모든 자연수를 있게 하는 근원이듯, 아이는 어른에게 필요불가결한 원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다 아이들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다. 식사를 할 때, 반찬도 제일 좋은 부분을 루트에게 준다.

무엇보다 박사는 루트의 영향으로 변한다.

식사 예절이 엉망이었던 박사였다. 하지만 박사는 루트 때문에 변화한다. 식사 때, 박사가 가정부가 만든 음식 앞에서 처음으로 두 손을 마주잡고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루트와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한 때였다. 루트의 영향으로 박사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박사의 변화는 박사가 루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루트가 합숙에 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가정부가 걱정을 하자, 박사는 "걱정 없어. 안심해도 좋아. 루트 기호는 튼튼해. 모든 숫

자를 보호해 주니까."라고 위로한다. 또 야구장에서 파울볼이 자신들에게 떨어질 때, 박사는 전신으로 루트를 감싸며 보호한다. 자신의 목과 손을 한껏 펼쳐 절대로 이 연약한 아이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로 그를 보호한다.

그리고 가정부가 해고된 뒤, 박사네 집에 찾아온 루트를 둘러싸고 가정부와 형수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박사는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말다툼을 중지시킨다. 여기에서 박사가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루트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루트는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사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루트를 구한 것이다. 박사가 어린아이인 루트에게 쏟는 애정의 순수함에는 놀라운 면이 있었다. 박사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루트를 지키려고 했다. 어린이는 늘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도 루트를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큰 기쁨으로 여겼다.

박사는 현상문제에 대한 고찰 때문에 가경(佳境)에 빠져있을 때조차 루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무한정 시간을 할애했다. 루트가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이든 기뻐했다. 박사는 루트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고, 그런 박사에게서 루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따스한 정을 느낀다. 박사가 루트와 놀아주는 모습에서 자상하고 인자한,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가족적인 정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박사의 역할은 말 그대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박사 본인이 엄청난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인 루트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감탄하고, 루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답을 내면 그것을 또 칭찬해 주는 모습에서 박사가 사회적으로 루트를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박사는 가족의 기능에서 남성의 역할과 어린이를 사회적 가

치체계에 맞게 가르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부는 가족의 기능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한다.

어머니의 역할은 가족의 영양과 애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가정부는 박사의 영양을 생각해서 박사가 싫어하는 홍당무를 몰래 요리에 넣는다. 무엇보다 가정부는 80분의 기억을 가진 박사를 위해 모든 행동을 배려한다. 그녀는 박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명찰을 만든다. 그가 자기 몸에 메모지를 붙이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명찰을 달면 괜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들에게도 교문을 나서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명찰과 루트 명찰을 바꿔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인 루트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박사는 소수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나와 루트는 절대로 "그 얘기는 벌써 들었어요."라고 말하지 않기로 굳게 약속했다. 에나쓰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약속이었다. 신물이 날 정도로 여러 번 들은 이야기라도 성의를 가지고 들으려고 노력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수학자처럼 대해주는 박사의 노력에 루트와 나는 보답할 필요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5]

그녀와 루트는 박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종류의 혼란이든 혼란은 박사에게 슬픔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두 사람만 잠자코 있으면 박사는 잃어버린 것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과 같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정부의 노력은 모두 박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부는 야구를 좋아하는 박사를 위해 야구장 티켓을 구입하고, 박사를 위해 제 돈으로 박사의 구두를 사고, 그리고 돈이 추가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밤을 새워 박사의 병간

---

5) 小川洋子「博士の愛した數式」新潮社, 2005, p. 96.

호를 한다. 가정부는 가족처럼 박사를 돌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그 보답으로 박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가정부는 여성의 입장에서 박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충실히 가족의 영양과 애정을 행한다.

한편 루트도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루트는 어린 나이이지만, 기억에 장애가 있는 박사를 배려한다. 루트는 누구보다도 박사를 이해하고 존경하며 따른다. 루트는 박사의 집에서 일하다가 숫자로 소통하는 박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둔 가정부들과 박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박사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함을 알고 슬퍼할까봐 조심스러워하고 그를 배려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또 루트는 박사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루트는 박사가 한신타이거즈의 에나쓰의 팬인 것을 알고, 현역 시절의 그를 알기 위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수집한다. 조금이라도 박사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共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루트는 박사를 못 믿은 어머니에게 화를 낼 정도로 박사를 신뢰한다. 루트는 박사의 응급처치를 못 믿은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상당히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 가정부는 루트를 박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하였지만, 루트는 의심하지 않는다. 루트는 어머니와 화해를 한 후에도, "내가 다친 날의 일은 절대 잊지 못 할 거야."라고 말한다. 루트가 얼마나 박사를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정부는 이러한 루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박사의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전해져 오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루트는 그 모든

>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느끼고 이해했다. 당연하다는 얼굴로 건성으로 적당히 받아넘기거나, 모르는 채 지나가거나 하지 않고, 자신이 박사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고귀하고 고마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6]

루트는 어린 나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박사의 보살핌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박사에게 더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박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나중에 그가 수학교사가 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박사와 가정부, 그리고 그녀의 아들 루트의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감싸주는 모습에서 서로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그저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는 숫자를 소통의 매개체로 삼아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지닌 세 사람이 따뜻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강한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세 사람에게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 서로의 숨결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고 사소한 일이 조금씩 달성되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가정부의 생각은 가족의 형태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가정부와 루트와 박사인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파슨스가 말한 가족의 두 가지 기능, 즉 어린이를 사회의 규범적 가치체계에 맞게 가르치는 기능과 남성이 심리적인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안정되고 다정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박사와 가정부, 그리고 루트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박사와 가정부는 루트를 사회적 가치체계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중에 그는 수학교사가 된다. 또 가정부와 루트는 박사의 심리적인 상처를 보듬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박사와 가정부와 루트로 이루어진 구성원은 가족의 형태에서 파슨스가 말하는 가족의 두 가지 기능과, 그리고 남성

---

6) 같은 책, p. 200.

과 여성의 역할을 충족하는 하나의 가족(家族)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부는 박사에게 보살핌과 관심을 보여주며, 박사는 루트에게 부족한 사랑을 주고, 루트는 박사의 삶에 행복을 준다. 이들은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보살핀다.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혈연보다 더 서로를 생각해주는 세 사람의 관계이다. 꼭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함으로써 진짜 가족처럼 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비록 피가 연결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 형태를 이루게 된다.[7]

가정부는 이러한 모든 것이 "모두 박사 덕분이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박사와 가정부, 그리고 루트 어느 한 사람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었다. 가정부는 말한다.

> 우리는 10만 자리 수나 되는 거대한 소수와 수학의 증명에 사용되는 가장 큰 수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수, 무한을 넘어서는 수학적 관념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동원해봐야 박사와 함께 지낸 시간의 밀도에는 미치지 못한다.[8]

이렇게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세 사람이 함께 지낸 시간의 밀도는 가족의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은 서로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가정부는 박사 덕택에 아버지와

---

7) 자발적 무자녀 가족생활까지 가족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가족 정의를 내려보면, 〈가족은 경제적 협동 혹은 일상생활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정서적 만족을 얻는 사회생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정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수행하는 기능과 형태는 따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기초단위 그 자체를 가족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혈연관계나 법적 구속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집단이면 모두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정문, 장상희 저『가족 사회학-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도서출판 아카넷, 2002, p. 22.)

8) 小川洋子「博士の愛した數式」新潮社, 2005, p. 6.

같은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박사는 가정부로 인해 1975년의 과거로부터 사회에 나오게 되고, 루트는 박사의 영향으로 수학교사가 된다.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가정부와 루트가 박사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박사가 어린 루트를 생각하는 마음, 그들 세 사람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모습은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란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관계다. 하지만 가장 취약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관계일 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전통사회의 가족의 의미와 다르다. 현대사회는 극심한 경쟁사회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바로 낙오되어, 사회에서 멀어진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가족해체와 가족붕괴라는 가족의 파탄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는 경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은 아니다. 우리들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세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가족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현대일본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이 작품에서 존재한다.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도덕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부를 그만두어도 마치 가족과 같이 가정부와 루트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 있는 박사를 만나러 간다. 이것은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요일 아침, 그들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담은 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오른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은 박사가 죽을 때까지 몇 년이나 계속된다.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과의 비교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이다.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2006년에 고이즈미 다카시(小泉堯史) 감독 연출로 제작되었다. 영화에서는 박사 역에 데라오 아키라(寺尾聰), 가정부 역에 후카츠 에리(深津繪理), 어른 루트 역에 요시오카 히데다카(吉岡秀隆), 어린이 루트 역에 사이토 류세이(齋藤隆成), 그리고 형수 역에 아사오카 루리코(淺丘ルリ子)가 출연했다. 원작소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의 스토리를 재현한 이 영화는 그해 개최된 제30회 일본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박사를 연기한 데라오 아키라가 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소설과 영화는 다른 장르에 속하지만 서사구조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 소설은 소설만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또 영화는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소설은 언어로 된 문장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설명한다. 영화는 영상으로 구현한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에 음악이 들어간다. 소설은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소설을 영화화하는 방식에 대해 코닉스 베르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9)]

> 첫째, 원작을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소설이 영화와 시간적인 규모가 비슷하거나 영화적인 극적구조로 되어있는 경우는 원작을 크게 손대지 않고 각색할 수 있다. 이는 본래의 스토리라인을 극으로 기승전결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택해 원작에 충실한 방법이다.
>
> 둘째, 원작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소설을 축소 각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원작의 정신에는 충실하며 영화의 특성에 맞는 표현방식이 될 것이다.

9) 이경희 『소설의 영화화 연구: 윌리엄 서머셋 모옴의 「인생의 베일」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2011, p. 24, 재인용.

셋째, 짧은 이야기를 각색자가 새로운 에피소드를 연결하여 확대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단순한 연장이기보다, 작품을 하나의 소재로 삼아 시대상이나 인물의 활동 등을 첨가하는 일이다.

넷째, 원작의 주제는 살리되, 원작의 스토리를 버리고 작가나 감독의 창작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네 가지 방법이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몇 가지 방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에 해당된다. 즉 영화는 원작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소 각색 혹은 새로운 에피소드의 첨가를 통해 감독의 의도에 맞게 변형된다. 여기에서는 '원작의 변형'이라는 관점으로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형에는 시점의 변형, 시공간의 변형, 그리고 사건과 인물의 변형이 있다.[10]

그러면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원작의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시점의 변형으로 화자(話者)가 다르다.

소설에서는 가정부가 화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동시에 박사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이야기 전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한편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는 성인이 된 루트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내레이터 역할을 한다.

둘째, 공간의 변형이 있다.

소설과 영화에서 공간적 배경의 차이도 나타난다. 소설은 박사가 집에서 루트를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수학교사가 된 루트가 학생들에게 첫 수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수업이 끝나면서 영화가 마무리된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세 사

10) 서동훈 「소설의 영화 각색에 나타난 확장과 변형의 양상; 소설 『사진관 살인사건』『거울에 대한 명상』과 영화 『주홍 글씨』를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제14호, 2008, pp. 255-256.

람이 한신타이거즈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가지만, 영화에서는 루트의 어린이야구단 경기를 보러 간다. 또 소설에서는 박사와 가정부가 이발소와 치과에 가지만,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산책을 한다.

공간의 차이는 소설과 영화의 화자가 다른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야구장 장면은 제작 상 경제적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박사가 외부와 접촉을 시도하여 세상과 조우하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지, 프로야구 경기나 이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몇 군데에 공간이 변형된 곳이 있지만 사소한 것이다.

셋째, 사건, 인물의 변형이다.

소설은 문장으로써 묘사하고, 영화는 영상으로 구현한다. 당연히 소설 쪽의 문장이 더 구체적이다. 영화에서는 시간의 제약도 있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는 가정부와 루트가 박사에게 선물하기 위해 에나쓰 선수의 프리미엄 야구카드를 구하려고 애쓰는 일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소설에 있는 상당한 부분을 생략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영화에서는 소설에서 미진한 부분을 감독 자신의 상상력으로 해석한다. 영화에는 영화의 문법이 있고, 여기에 감독의 상상력이 들어간다.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물의 변형이다. 소설이 영화화될 때 인물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영화에서 감독은 원작과의 개연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강조하는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강조할 수 있다. 그것이 원작을 해석하는 감독의 상상력이다. 소설에서와 달리 영화에서는 형수가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한다.

한편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는 오일러(Euler) 공식이 중요하다.[11]

---

11) 오일러의 등식은 1768년에 출판된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책 ≪introduction≫에 수록된 것으로 식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서 오일러 공식은 가정부와 형수의 갈등이 수습되는 전환점을 제공한다. 박사가 내민 오일러 공식은 형수와 가정부의 말다툼을 그치게 하고, 가정부가 다시 박사의 집에 출근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왜 형수가 이 공식을 보고 가정부와의 말다툼을 그만두고, 다시 가정부를 박사의 집으로 출근하게 하였는가 하는 설명은 없다.

그러면 오일러 공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일러 공식을 조사하기 전에 우선 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다. 숫자 0은 인도의 수학자가 발견한 숫자이다. 박사는 가정부에게 0이라는 숫자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0이 경이로운 것은 기호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숫자라는 점에 있어. 가장 작은 자연수 1보다 1만큼 작은 수, 그것이 바로 0이지. 0이 등장해도 계산 규칙의 통일성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 아니 오히려 모순이 없는 것이 강조되어 질서는 견고해 지지. 자, 한 번 상상해봐.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 고운 소리로 지저귀는 새야. 부리는 귀엽고 날개에는 예쁜 무늬가 있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순간, 새는 놀라 날아가 버리지. 나뭇가지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아. 그저 마른 잎이 흔들릴 뿐."[12]

$e^{\pi i}=-1$

0과 1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다음 꼴로도 쓰인다.

$e^{\pi i}+1=0$,

여기서 e는 자연로그의 밑, i는 허수단위, π는 원주율이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식을 "수학에서 가장 비범한 식"(the most remarkable formula in mathematics)으로 불렀다. 이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개의 상수와 네 개의 연산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 개의 상수는 자연로그의 밑 e, 허수단위 i, 원주율 π, 1, 0이다.

네 개의 연산은 지수, 곱셈, 덧셈 그리고 등호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오일러의 등식 (검색일: 2017.10.29)

12) 小川洋子「博士の愛した數式」新潮社, 2005, p. 220.

박사는 0이라는 숫자는 무(無)를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마음을 예로 들고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박사는 0이라는 숫자에 대한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가정부에게 가르쳐준다. 나뭇가지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지만, 새 한 마리가 왔다가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수인 0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마음속의 진실을 나타낸다.

오일러 공식은 $e^{\pi i}+1=0$이다. 여기에서 π는 원주율이다. i는 -1의 제곱근이고, 허수다. e는 π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다. 오일러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개념을 이용하여 하나의 공식을 짜냈다. 무관하게 보이는 수들 사이에서 자연스런 연결을 발견한 것이다. 오일러 공식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유성의 빛이었다. 어둠의 동굴에 새겨진 시 한 줄이었다. 가정부는 거기에 담긴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이 공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π와 i를 곱한 수에서 e를 거듭제곱하여 1을 더하면 0이 된다.
> 한없이 순환하는 수와, 절대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얼빠진 수가 간결한 궤적을 그리며 한 점에 착지한다. 어디에도 원은 없는데 예기하지 않던 하늘에서 π가 e의 곁으로 내려와 수줍음 많은 i와 악수를 한다. 그들은 서로 몸을 마주 기대고 숨죽이고 있는데, 한 인간이 1을 더하는 순간 어떤 예고도 없이 세계가 전환된다. 모든 것이 0으로 규합된다.[13]

가정부는 오일러 공식에서 한 인간이 1을 더하는 순간 세계가 전환되며, 그리고 모든 것이 0으로 규합된다고 인식한다. 요컨대 오일러 공식에서는 한 인간의 존재가 중요하다. e와 π와 i라는 세 개의 불완전한 개념에 1이라는 한 인간이 더해지면서 세계가 전환되며,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

13) 같은 책, pp. 197-198.

가정부와 형수의 말다툼을 한 순간에 멈추게 한 것은 박사가 내민 종이에 적혀있는 수식이었다. 그것은 수식 $e^{\pi i}+1=0$으로, 오일러 공식이었다. 박사가 내민 오일러 공식이 적힌 종이를 보고, 형수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조용해진다. 그리고 가정부를 다시 박사의 집으로 불러들인다. 오일러 공식으로 말미암아 형수와의 말다툼이 마무리 지어지고, 다시 가정부는 박사의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박사가 형수에게 제시한 오일러 공식에는 둘만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사가 형수에게 내민 오일러 공식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형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만큼 이 공식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사와 형수가 이 공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설에서는 박사와 형수의 관계가 확실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소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형수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영화에서는 박사와 형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는 소설에서 애매한 상태로 넘어간 장면에 영화적 상상력을 부여하여, 소설에는 없는 영화 자신의 해석을 한다.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는 루트의 11번째 생일 파티 때, 형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형수는 박사의 교통사고 원인과 자신과 박사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낙태한 것을 고백한다.

> 동생이 기억을 잃은 교통사고는
> 내가 같이 가자고해서…
> 내가 지은 죄는
> 사고만이 아니에요.
> 부모를 버리고
> 집안과 친구도 버리고…
> 갖게 된 아기를

낳을 용기가 있었더라면…
우리 둘의 길도…
저는 죄가 깊은 여자인지라…
……
모든 걸 맡기겠어요.[14]

박사가 당한 교통사고가 형수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맞은편에서 오던 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그런데 형수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용기가 없어서 둘 간의 관계가 이지러졌다고 고백한다. 즉, 박사와 자신 사이에 생긴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 두 사람의 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 파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아이를 낳을 용기가 없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인간의 1은 낙태한 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기에 박사와 형수의 오일러 공식은 완성되지 못했다. 형수가 부모도 버리면서까지 가진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오일러 공식은 깨져 버렸던 것이다. 모든 것을 규합하는 0이 되지 못했다. 또 그것이 박사의 교통사고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형수는 한 생명을 버림으로써 결국에는 박사와 자신마저 불행해졌다.

박사는 숫자 중에서 소수를 가장 좋아한다. 소수는 약수가 자신 하나밖에 없는 수이다. 하나밖에 없기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숫자이다. 이것은 역시 자신 하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존엄함과 같은 의미이다. 박사의 소수는 한 인간의 존엄함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박사와 형수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때, 박사는 형수에게 오일러 공식을 설명하면서 한 인간이 더해지면서 그들의 세계가 전환되는 기적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인간은 물론 그들

14)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 박사가 사랑한 수식 제작위원회. 2006.

에게 태어날 아이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세계는 전환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이 이후 두 사람 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형수는 박사가 이 공식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루트가 그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눈동자로부터 조금씩 동요와 냉담과 의심이 사라져갔던 것이다. 박사는 오일러 공식을 형수에게 말하며 한 인간인 아이의 의미와 함께, 그녀에 대한 변치 않은 사랑을 맹세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형수는 가정부와 루트를 다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것이다. 가정부를 다시 받아들인 그녀는 안채와 별채를 구별하는 문을 가리키며, "이 문은, 이제부터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앞의 "완전히 녹이 슬고 새똥까지 덕지덕지 붙어있어 이제 와서는 어떤 열쇠로도 열릴 것 같지 않은 자물쇠"로 된, 안채와 별채를 연결하는 문은 열린다. 이제 안채와 별채는 이어진다.

영화에서 형수의 역할이 강조된 이유는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 이러한 세 사람의 만남은 형수가 없었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수만이 박사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형수가 없으면 박사는 그들을 만날 수조차 없다. 박사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수가 세 사람을 연결시키고 있다. 형수가 들어가야 비로소 그들의 오일러 공식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오일러 공식의 한 인간은 형수였다. 형수라는 한 인간이 더해지면서 그들의 세계가 전환되고, 모든 것이 0으로 규합된다. 그러므로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 가족의 형태는 형수까지도 포함된 네 명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는 생명(生命)을 중시한다.

형수는 아이를 낙태하고, 가정부는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가 낳지 않는가의 결정이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정

부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집에서 나오고 학업도 포기하는 등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루트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한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한, 즉 생명을 포기한 형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불완전한 생활을 보내게 된다. 영화에서는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이야기한다.

가정부가 아이를 낳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자신도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태어나 보니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녀는 아들 역시 생명을 준 엄마에게 감사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 없이 아들을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가정부에게 루트를 낳는 것은 무조건적인 행동이었다. 자신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수에게 아이는 선택사항이었다. 두 사람의 차이인 것이다. 영화에서는 형수의 고백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일러의 공식은 "불완전한 개념들을 이용하여 무관하게 보이는 수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발견한 식"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e, i, π와 같은 무리수와 허수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불완전한 개념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해지면서 세계가 전환되며 모든 것이 0으로 규합된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때로 루트가 될 수도 있고, 가정부가 될 수도 있고, 박사가 될 수도 있고, 형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불완전한 상태에 한 인간이 더해지면서 세계가 전환된다. 요컨대 이 공식은 한 인간이 가지는 위대함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한 인간이 가지는 의미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의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할 것이다.

영화에서 감독은 형수를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형수와 박사의 관계를 확실히 했다. 그리고 형수의 낙태사건을 장치시켜 생명 존중의

주제 의식을 강조했다. 이처럼 영화는 생명존중 의식, 가족의 온정에 대한 주제를 생생하게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은 영화로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이상, 본고에서는 오가와 요코의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 나오는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소설과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비교해 보았다.

우선 가정부는 타인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가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요컨대 그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정부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 나오는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한다. 세 사람의 관계는 피로 연결되어 있는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화 「박사가 사랑한 수식」에서는 형수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소설에서 가정부와 박사, 그리고 루트 세 사람의 가족이었다면, 영화에서는 여기에 형수가 들어가서 네 사람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된다. 영화에서 오일러 공식의 한 인간은 형수로, 형수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완성된다. 또 영화에서는 형수의 낙태를 통하여 생명존중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小川洋子「博士の愛した數式」新潮社, 2005, pp. 1-283.
영화「박사가 사랑한 수식」박사가 사랑한 수식 제작위원회, 2006.
오가와 요코 저「박사가 사랑한 수식」김난주 옮김, 도서출판 이레, 2004, pp. 1-259.
2,
서동훈「소설의 영화 각색에 나타난 확장과 변형의 양상: 소설『사진관 살인 사건』『거울에 대한 명상』과 영화『주홍글씨』를 중심으로」대중서사학회『대중서사연구』제14호, 2008, pp. 255-256.
이경희「소설의 영화화 연구: 윌리엄 서머셋 모옴의『인생의 베일』을 중심으로」원광대 대학원, 2011, p. 24 재인용.
3,
박숙자 외 편역『가족과 성의 사회학』사회비평사, 1995..
조정문, 장상희 저『가족 사회학-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도서출판 아카넷, 2002.
https://ko.wikipedia.org/wiki/오일러의 등식 (검색일: 2017.10.29)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황봉모
소속: 한국외대 일본언어문화학부
주소: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A 408-1405
전화번호: 010-4280-8827
전자우편: kubojun@hanmail.net

[Abstract]

The Study on "The Doctor's Love Formula"

Hwang, Bong-Mo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housekeeper and doctor and her son appearing in "The Doctor's love formula" by Yoko Ogawa.

The housekeeper and the doctor and the son in "The Doctor's love formula" can be called a family. They play their part from their own position,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of the three people is not a traditional family connected by blood, but it is a new family style that is connected with each other.

Meanwhile, in the movie of "The Doctor's love formula", an elder brother's wif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novel, the family have three people composed of a housekeeper and a doctor and a son. but in the movie, an elder brother's wife enters his family and becomes a family of four people. in the movie, as she enters his family, a new family is completed. Also, in the movie, it is thought that consciousness of respect for life is emphasized by an elder brother's wife.

Key words: "The Doctor's love formula", Yoko Ogawa, the housekeeper, a doctor, a son